

온유, 하나님께 길들여짐

팔복 강해 - 이렇게 살아가라 (4) | 구역 나눔 교제 | 설교자: 황성국 목사 (마 5:5)

적용하기



세/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온유함은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진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물러남이 없는 단호함이 있지만, 또한 자신은 온전히 내어놓는 온순함과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무능과 무지로 인해 굽실거리는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온순함과 부드러움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입니다.

1.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호날두와 같이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많은 이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뛰어난 축구 실력에 잘생긴 외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도 한 몫을 했습니다. 호날두가 2017년 세계 최고의 선수로 상을 받게 되었는데, 수상 소감 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나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다. 다른 선수들을 존중하지만 아직까지 나보다 나은 선수를 본적이 없다. 내가 못한 것은 다른 선수도 하지 못했다. 나는 양발을 잘 쓰고 빠르고 힘이 세며 헤딩도 잘하고 득점에 어시스트까지 다 할 수 있다. 팬들이 네이마르나 메시를 좋아하는 건 자유지만 그들 모두 내 경쟁 상대는 아니다"

자기 입으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의 자신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운동선수의 실력은 자신감이 절반이라고 하지만, 자기 입으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호날두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그렇게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2. 본문의 온유함 (헬-프라우스)의 뜻은 무엇이고, 당시 누구를 대상으로 주로 쓰여졌습니까? 이 뜻에 비추어 보아 모세/예수님의 온유함 어떤 모습입니까? (민 12:1-16 / 사 53:7)

- 헬라어로 온유가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유순한, 순종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단어는 여인들의 성품을 말하거나,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프라우스-온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유약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루저"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 모세는 민수기 12:3절에서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라고 밝힐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의 배경은 모세의 혈육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내용입니다. 겉으로 들어난 반기의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인데, 12:2절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하는 말을 보면 구스 여인은 언급도 안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구스 여인을 빌미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느냐가 불만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도 여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대노하셨고, 미리암에게 나병으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쫓김을 당해야 합니다. 전염이 되는 병이기도 하고, 특히 부정함을 옮기는 병이라서 진영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고쳐 주지 않는 한 진영 밖에서 홀로 죽게 되는 것인데, 지금 미리암이 광야에서 홀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의 유일한 지도력을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대로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은데, 미리암을 살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미리암으로 인해 모세의 리더십이 큰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도,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낫게 하였고, 그런 모세를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온유지 요새 말로 말하면 "너는 배알도 없냐?"라는 소리를 듣기 쉬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

온유, 하나님께 길들여짐

팔복 강해 - 이렇게 살아가라 (4) | 구역 나눔 교제 | 설교자: 황성국 목사 (마 5:5)

적용하기



프라우스는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군마로 길들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야생마를 오랜 조련을 통해서 기마병이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온순한 말”로 만드는 배경이 이 “온유”라는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무능하기 때문에 순종적일 수밖에 없는 온유함이 아니라, 능력과 기운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억제하는데서 오는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온유함은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온순하고 순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길들여진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 자신의 뜻과 기질을 절제하고 누리고 있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의 온유한 모습도 모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온유함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한 유대 지도자들은 서둘러 예수님을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는데,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는 온유함은 자신에게 어떤 공격이나 피해가 와도 전혀 맞서지 않고 온 몸으로 받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3. 온유함-프라우스라는 단어가 갖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배경은 모세/예수님의 온유함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출 32:27/마 18:53-54)

-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프라우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순하고, 순종적인”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배경이 재미있습니다. 프라우스는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군마로 길들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야생마를 오랜 조련을 통해서 기마병이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온순한 말”로 만드는 배경이 이 “온유”라는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무능하기 때문에 순종적일 수밖에 없는 온유함이 아니라, 능력과 기운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억제하는데서 오는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처럼 모세의 온유함은 무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했습니다. 모세의 단호함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과 민수기 25장에 바알브울의 사건인데,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사이 산 아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사건이고, 민수기 25장은 백성들이 모압의 바알 브울의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벌였던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 두 사건에서 가담한 사람들을 처단하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내렸던 명령입니다. 출 32:27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 만일 모세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무골호인이었다면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자를 쳐 죽였던 그 기질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단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해 훈련되어 온유한 성품으로 변모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 예수님의 온유함도 모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무능하기 때문에 밟으면 밟히는 식의 온유함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온유함 속에 감춰진 기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장사꾼들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시며 상인들을 전부 몰아내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막아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선으로 가득찬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이 비난거리가 된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인자가 안식일에 주인”이라며 강행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가차 없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반대 했다가 사탄으로 취급받기까지 했습니다. 사

온유, 하나님께 길들여짐

팔복 강해 - 이렇게 살아가라 (4) | 구역 나눔 교제 | 설교자: 황성국 목사 (마 5:5)

적용하기

하 나님의 처분에 대해 온유하다는 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게 처분했으니 알고 있으라.”라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존재의 격차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처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서 오는 모든 시련의 환경들과 고통의 사람들에 대해 온순하고 부드러운 온유함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에 의해 온유한 자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람들이 말하는 무능한 온유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능한 온유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장면이 겔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려 들자, 베드로가 칼을 빼 들고 성전 경비대인 말고의 귀를 베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 18:53-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언급한 군단은 당시 로마가 부대를 조직하는 단위로 한 군단에 약 6,0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열두 군단이라고 하면 무려 칠만 이천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대규모 병력인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의 천사들을 병력으로 움직일 힘이 예수님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 가는 것이 아니고, 잡혀가 주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는 뱀전 2: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의 실체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수치와 모욕 그리고 불의를 힘으로 되갚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힘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감추는 마음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 때문에 복수심과 적대감도 모두 내려놓는 온순하고 순종적인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었습니다.

4. 오스왈드 챔버스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 온유한 것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고된 인생을 하나님의 처분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나에게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내 인생에 어떤 고약한 사람이 들어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시기 위한 처분으로 알고 그 처분에 대해 온순하고 순종적인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온유함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나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을 꺾으며 나를 멋진 군마로 길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고삐와 채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용서와 관용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던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심지어 자신을 못박고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고삐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사람에 대해 한없이 온순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폭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없이 온유하게 대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의 생을 맡겨 드리는 온유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온유, 하나님께 길들여짐

팔복 강해 - 이렇게 살아가라 (4) | 구역 나눔 교제 | 설교자: 황성국 목사 (마 5:5)

적용하기



약의 백성들이 땅의 기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경험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정, 기업, 교회, 직장 그리고 내가 사는 커뮤니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들여진 온유함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주신 땅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5. 온유한 자가 복으로 받는 “땅의 기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복으로 받는 땅의 기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자들에게 땅의 기업을 주시는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땅의 기업은 물리적인 땅을 말하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려 받는 땅의 기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달픈 환경을 만나도, 어떤 고약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경험하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